"각 지역 성보박물관과 연계 강화해야"

관장 회의 확대 추진· 각 관별 특성개발 지원 필요

〈1면에서 계속〉조계종 총무원의 한 교역직 스님은 "사전 공지 없이 휴관하는 것은 관람객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전시실을 한 곳씩 막고 특별전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체 휴관을 감행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관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물관은 올해에서야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 6월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이용진 팀장은 "박물관이 2007년 3월 개관했지만 정규직 발령은 2007년 7월 이후에나 이뤄져 홈페이지 등을 제작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중앙박물관이 2007년 〈도록〉을 발간한 사실로 볼 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무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 지역사찰 성보박물관과 연계 요원

불교중앙박물관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조계종 성보박물관의 허브로 전국 34개 성보박물관과 연계에 있었다.

범하 스님은 작년 12월 17일 열린 제4회 종교박물관 · 미술관 학술심포지엄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의 전망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산하 성보박물관의 중앙기구로 각 성보박물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각 성보박물관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범하 스님의 주장은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년이 지난 지금도 원론에 머물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은 지류(紙類) 전문가 1인뿐이다. 목조와 석조 등 소재별 전문가가 없을뿐더러 1인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만의 지류로 된 성보 관리도 벅차 보인다. 지역 성보박물관과의 네트워크 구성도 빈약하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성보박물관장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렸다. 범하 스님은 "2008년에는 2~3회 이상 성보박물관장 회의를 개최해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몇 곳을 제외한 대다수 성보박물관의 관장이 공석인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교계 관심과 지원 확대 절실

2007년 7월 10일 제정된 '성보박물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령'에는 ▲종단 성보문화재의 전시 및 홍보 ▲종단 성보문화재의 보존관리 · 복원 ▲종단 성보문화재를 통한 포교 및 사회교육 ▲종단 내 성보박물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등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을 명시했다.

그동안 조계종 문화부 일반회계였던 불교중앙박물관의 재정이 조계종 특별회계에 편입된 것도 독립기구로서 불교중앙박물관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종령에 명시된 역할 진행에 현재의 예산과 인력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한 전문가는 "종단 지원금에 의지해야 하는 불교중앙박물관 재정 규모는 종단의 성보문화재 인식수준을 가늠하게 한다"며 "종회의원 스님부터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 가져 불교중앙박물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의 인력은 교역직과 2명과 일반직 3명 등 6명이 성보문화재 관리, 보존부터 성보박물관 지도 · 교류까지 광대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예산은 교계인식 확산으로 쉽게 늘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 확보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한 전문가는 "성보 관리의 주체는 결국 출가자일 수밖에 없다. 중앙승가대 등 승가 문화재 관리인력 양성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첫돌, 지난 1년 부진했던 활동을 반조해 이름처럼 불교 '중앙' 박물관에 걸맞는 위상으로 거듭나 성보문화재를 통한 포교의 시대를 활짝 열길 기대한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제막식에 앞서 지관 스님이 도의국사 진영 앞에 헌향하고 합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m 높이 도의국사 구법기념비에

생애·법맥 등 4300字 새겨

〈1면에서 계속〉조계종은 그동안 종조 도의국사를 기념하는 현창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2월 '조계종조 도의조사 입당 구법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구법비 건립 입지 조사와 협약서 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우민사 동불전 앞에 구법비 건립을 완료했다.

조계종과 중국불교협회가 4월 11일 제막식을 봉행한 구법기념비는 귀부와 이수를 포함한 높이 5.16m 규모로 완공됐다. 지관 스님이 직접 작성한 비문에는 도의국사의 생애와 구법활동, 법맥 등 4300여 자(字)가 국 · 한문 혼용으로 새겨졌다.

기념비가 세워진 우민사는 도의국사가 구법을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도의국사는 건중 5년(784) 사신인 한찬 김양공을 따라 당나라로 들어가 구법을 했으며, 산서성 오대산 중대(中臺)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광동성 광주 보단사(현재의 대범사) 계단에서 비구계를 품수했다. 이후 홍주 개원사(현재의 우민사)에서 서당 지장선사를 친견하고 활연 대오했다.

지관 스님은 "도의조사와 서당 지장선사의 후손들이 도의국사 수법의 뜻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우게 됐다"며 "조계종과 중국 임제종은 지난 1년여 간 교류를 통해 같은 법맥인 마조선사의 후손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우민사 방장 순일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기념비 건립은 도의국사가 우민사에서 서당 지장 대화상에게 구법하여 법을 받은 찬란한 역사가 기록된 증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역사의 기로에서 중한 양국은 육조의 남돈조계법수와 마조 · 지장 선사의 가풍을 잇고 널리 펼치리라 굳게 믿는다"고 평했다.

원로회의장 종산 스님은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저 옛날 스님께서 당나라를 찾으신 것이 조사의 선법(禪法)을 구하는 데 그 원력을 두시었듯이 오늘 비석을 세우는 일은 그냥 돌덩어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전해주신 선법을 우뚝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종조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불교가 제 자리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우리 종도들은 마음을 모으고 원력을 내어 종조님을 선양하고 스님의 뜻을 기리는 불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원학 스님, 기획실장 승원 스님, 재무부장 장적 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등 한국 대표단 100여명과 중국불교협회 회장 일성 스님, 우민사 방장 순일 스님, 중국 강서성 민족종교국 시에쇼치 사무국장 등 중국 불교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지관 스님은 우민사 방장 순일 스님과 (주)보광석재 김한열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오는 10월경에는 중국 광동성 남화선사에 도의조사 순례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비구니 학인스님 대운하중단 촉구 성명서

조계종 비구니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한반도대운하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월 7일 발표했다. 동학사 · 봉녕사 · 삼선 · 운문사 · 유마사 ·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꾸고 함부로 개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로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운하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천태종 총무원장 재임 가능

제81차 정기종회서 종헌 개정

천태종이 총무원장의 임기를 4년, 1차에 한해 재임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는 3월 28일 단양 구인사 인광당 5층에서 제81차 정기종회 본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 감사원장 임기 제한 등 종헌개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종헌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재임 가능(86조) ▲감사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재임 가능(121조, 임기)하도록 했다.

천태종의 종헌에는 총무원장 임기(56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감사원장의 임기(63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종의회는 소의경전(제3조)에 〈법화삼부경〉 〈천태오소부〉 〈대지도론〉 등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또 총본산 구인사에 '천태금강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헌(제23조)을 개정됐다. 여수령 기자

"수행종가 중흥 기대"

지관 스님 '포살·결계법' 시행 관련 담화문

"수행대중 모두가 포살의 의무와 갈마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 떳떳하고 실질의 힘을 가진 위대한 교단이 성취되고, 수행종가는 길이 중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76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결의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결계와 포살을 시행하며' 제하의 담화문에서 지관 스님은 "취임 이후 수행승가의 중흥을 제일의제(第一議題)로 삼은 뜻은 물신(物神)의 풍요 속에 고군분투하는 승가대중들의 자존(自存)과 정체(正體)를 실답게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며 "승가공동체는 화쟁(和諍)과 상생(相生)의 대중공의(大衆公議)를 여법하게 이행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공화(共和)의 유산을 전승해 왔다"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승가전통의 근간이며 화합승가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한계(限界)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結界)와 서로 합의결속(合議結束)한 학처(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포살(布薩)을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포살결계법' 제정에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제도보완과 홍보는 물론 대중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법 시행 일정에 대해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공청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고 4월 16일 선원 · 법계위원회 · 교구본사 ·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성 명 서

물은 우주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모든 생명은 물을 통해 태어난다.

우리는 맑은 공기와 청정한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한 우리의 무분별한 파괴로 자연이 그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입은 피해가 어떠했던지 여러 경험을 통해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뜻처럼 그 섭리대로 놓아두었을 때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물은 흐르다 거대한 바위나 굴곡을 만났을 때 거스르지 않고 돌아가는 순리를 따른다.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꾸고 함부로 개발하려는 것은 그 구조변경 과정에서 생기는 폐해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로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개발시대에 필요에 의해 청계천을 복개하여 만들었던 삼일고가도로가 보여주었던 부작용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는 우리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던가. 세계사적으로도 훼손된 자연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사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논리만이 살 길이라고 부르짖는 시대역행적인 파천황(破天荒)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우선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좁은 국토에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며, 서울 부산 간의 이동시간이 최소 60시간이라는 비경제성, 생태계의 파괴와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역사의 숨결인 문화유산들의 희생과 훼손, 홍수발생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 운하의 수량유지를 위한 주변 샛강들의 물부족, 운하관리에 따른 수질오염, 준설이후 문제발생 시 완전한 환경 재복원 불가능 등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운하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운하건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며, 인간의 탐욕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일임을 자각하고 자연에 대해 겸손하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팔만대장경이 어떠한 인위적인 조치도 없이 조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800년 세월동안 온전히 보존해 온 것을 상기하라.

불기 2552년 4월 7일

동학사승가대학, 봉녕사승가대학, 삼선승가대학, 운문승가대학, 유마사승가대학, 청암사승가대학 일동